



“루이뷔통 지고 다이소 뜬다?” 불황이 만든 ‘대가성비 시대’

경기침체·고물가에 불황형 소비
저가상품 취급, 다이소 성장 뚜렷

LVMH 1분기 실적 예상치 밀돌아
구찌도 국내매장 10곳 철수 검토

이름하여 ‘대가성비의 시대’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가성비 를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명품 시장은 주춤하면서, 실속형 저가 상품 위주로 유통 시장 판도가 재편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3조 9689억원으로, 전년(3조 4604억원)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3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다이소 성장세는 뚜렷하다. 애플리케이션·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3월 다이소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405만 명으로, 전년 동월(214만 명) 대비 89%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1000~5000원대 초저가 상품만을 취급하는 다이소의 박리다매 구조를 감안하면, 4조원대 매출은 불황형 소비 확산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면



15일 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을 찾은 시민이 구매할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서, 가격 대비 효용이 높은 상품에 수요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타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가운데, 다이소만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2조 9457원, 2023년 3조 460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393억원, 2617억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같은 맥락에서, 명품을 중심으로 한고가 소비 시장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밀돌았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0.55% 하락을 예상했으나, 실제 패션·가죽 부문 매출은 5% 감소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부진을 보인 것이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루이뷔통, 크리스티앙 디올, 불가리, 로로피아나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이다.

명품 불황에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 전쟁이 한데 얹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불안과 환율 상승, 무역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명품 시장 큰 손인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국내 명품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구찌가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매장 46곳 중 약 10곳의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는 이미 지난달 말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매장을 폐점했다.

온라인에서는 명품 소비 둔화 현상으로 최근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의 경우 적자를 면하기 위해 외부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관세 전쟁까지 겹치며 국내의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자연스레 저가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성비 중심의 저가 시장과 중고 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봄 맞이 목욕하는 세종대왕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오리온,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국내외 공장 신증설에 8300억

진천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 투입
완공 땀 국내 2.3조 생산능력 갖춰
러시아 2400억·베트남 1300억 추가

오리온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 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

한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과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이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 라인이 증설된다.

베트남 법인은 매년 고신장을 거듭하면서 2024년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연풍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쌀스낵은 출시 6년 만인 올해 마켓쉐어 1위 달성을 목전을 두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국민대타협·생존전략 통해 위기 극복해야”

2025 감사·리더스 관리 포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강연
“생존본능·승부사 기질·집단의식
우리에게겐 기적 일궈낸 자신감 있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렵고, 복잡하기로는 1945년 2차 대전 종료 이후 가장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시기다”라며 “우리나라 경제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 집중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을사늑약이 있었고, 그 뒤 60년은 해방,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6·25전쟁, 분단 등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며 “그 다음 60년간 우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5배 성장

시키고, 세계 10대 국가로 도약하는 등 광장한 일들을 이뤘고 지금은 새로운 60년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위원장(지평인 문사회연구소 대표)은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대전환기의 세계 경제 현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 인력, 기술, 자본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근면하고 우수하며, 교육열도 높은 인력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부지런하게 생업에 임했고, 위대한 산업 국가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 박은정 “尹 캣타워, 건적 부풀려 착복 의심… 수사 필요” /사진 뉴시스
▲ 민주 “홍준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남 정황 드러나… 정계 은퇴해야”

▲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미 전략폭격기 B-1 B 전개
▲ ‘尹 계엄’ 이후 퍼진 ‘계엄문건 사칭메일’은 北 소행

▲ 한 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 국민의힘, 정부 12조 추경에 “민주 초당적 협력 나서야”

반도체 투자 33조로 확대… 송전로 지중화 70% 국비 지원

반도체 재정투자 강화 방안

첨단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비율 확대
비수도권 40~50%, 수도권 30~40%

건당 150억, 기업당 200억 한도로
소부장 중기·중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도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

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단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자·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

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0조+2조 ‘추경 12조’ 편성… 재해·재난에 3조 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임대주택 1000호, 저리자금 지원
기업 자금난 해소 정책자금 25조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해 4조 지원”

산불피해 수습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0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12조 원대로 짜여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전망이다.

12조대 정부 추경안

재해·재난 대응 3조여원
■재해대책비 기준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장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 2조원 반영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여원
■정책자금 25조원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관세피해·수출 위기 기업 자금난 해소
■인프라·금융·R&D 등 2조원 이상 지원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여원
■공공요금·보험료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카드소비 증가분 일부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저소득층 청년, 최저신용자 등 정책자금 공급

자료/기획재정부

먼저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지원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야당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빠른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세종=김연세기자

» 1면 ‘국민대타협·생존전략…’서 계속

“韓 경제, 낙폭치 않아 뭘 해야할지 집중해야”

그러면서 “기술 발전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나라의 문을 세계에 개방하고, 수출입국의 가치 아래에서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한국이 이뤄낸 기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면서 “한국인의 DNA가 큰 역할을 했다고 확인한다. 끈질긴 생존 본능,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 ‘우리’라는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 낸 집단 의식,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경쟁을 두려워 않는 개척자의 근성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미·중 패권전쟁이 돌연 시작된 것 같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며 “빠르게 부상한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의 판도를 흔들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는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신먼로주의(아메리카 우선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경제의 급변, 다시금 움직이는 일본 경제, 미국이 중심에 선 중동 경제 등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럽의 재 무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기회를 찾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대타협과 미래국가 생존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의지 회복과 경제·사회 구조개혁 등의 대타협을 이뤄내고, 규제혁명·기술혁명을 통해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생존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 근성, 그리고 기적을 일궈낸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한덕수 경선 불참에도 ‘견제구’… ‘반명 빅텐트론’ 거론도

한 권한대행 ‘무소속’ 출마 가능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제2의 윤석열’ 경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이날 오후 5시였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에 한 권한대행이

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는 ‘제3세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도 거론된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맥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민의힘은)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는데 그게 되더니”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날아왔다.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 권한대행도 정치에 입문할 수 있기 때문에 ‘태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공직자는 선거한 달 전에 사퇴하면 되므로, 한 권한대행이 오는 5월3일 이전에 사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측이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측에 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를 포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낙연·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반명 주자까지 참여하는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는 허상이다. ‘반명’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그냥 당권경쟁에 밀려난 비당권파들끼리의 연합을 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티끌 모아 티끌이고, 모여봤자 텐트는커녕 천한 조각 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syj@

환율불안·추경지연 등 변수 산적… 금리인하 전망 엇갈려

韓 정책기조 ‘안갯속’

한은, 내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시장, 환율안정 무게… 5월 관측
늦은 추경에 이달 인하 목소리도

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이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널뛰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본 뒤 다음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도 빨라야 5월 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만큼 4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5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내린 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 널뛰는 환율… 5월 금리인하설 무게

시장에서 5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주부터 이날(7영업일)까지 원·달러 환율 등락폭은 55.50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등락폭(38.10원)보다 높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90일 유예조치로 상승한 것이다.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언제든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며 “향후 물가 압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이 높은 상황

에서 관세정책으로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만8000호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매거래량이 월 최대 5000호 증감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의 경우 매매 계약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달 한은의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5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경 빨라야 5월 초… ‘이달 금리 내려야’

일각에선 이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수(소비+투자)부진에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둔화하면 경기악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달러로 1년 전(1633억달러)과 비교해 2.07% 줄었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였다가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1분기는 2.1%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심

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유예된 관세 조치까지 본격화되면 기업 심리는 더 위축돼 수출 증가세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이달 금리인하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통과까지 시일이 걸려 빨라야 5월 초 편성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기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며, 산불 피해와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균 KB증권 관계자는 “추경이 늦어져 대선 이후에 단행된다면 4월부터 시작된 보편관세에 대응한 재정정책이 부재할 수 있다”며 “5월 29일 금통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분기 자동차 수출 타격… 북미 10%대 감소

관세 리스크 확산

관세 발효 이전부터 산업 전반 영향
내달 부품관세 예상… 정부 대응 시급

1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역(逆)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최대 수출 지역인 북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한데 이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생산량(+1.5%), 내수 판매량(+2.4%), 수출액(+1.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 실적이다. 다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2.4%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올해 1분기(1~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수출량 기준으로는 2.2% 줄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3월 북미 수출은 32억7000만달러로 8.4%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억8000만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미 수출액은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77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별 3월 수출은 현대차가 10만1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KG모빌리티(60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GM(3만9845대, -10.0% ↓)과 르노코리아(2140대, 58.0% ↓)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 3월 수출은 6만8760대로 5.8%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5.3% 증가한 4만1969대로 친환경차 성장세

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56.6% 증가한 6033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데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에 이어, 5월 3일 이전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주당,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제시

권철승 의원 “AI 진흥정책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 위원장인 권철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 및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면 원격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에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AI 서비스 확산을 통한 ‘AI 변호사’ ‘AI 홈닥터’ 합법화 등을 제시했다.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요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이는 기술 탈취 및 증거 은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술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외부자금 출처비중 기준을 펀드 전체 합산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제도를 손질해 유보자금을 모험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AI를 강조하는데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이 전 대표는 법률가라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법정 시간 준수하는 틀을 깨지 않고 유연하게 하자고 제안할 것이기에 크게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구광모 LG 회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LG전자 노이다 생산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인도서 세번째 ‘가전 공장’ 짓는다 LG, 프리미엄·수출 전진기지 구축

8200억 투입해 스리시티에 착공
세탁기·TV 등 고급형 중심 생산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시장 확대
14억인구·수출 모두 겨냥 승부수

LG전자가 내달 인도 내 세 번째 가전 공장을 착공한다. 프리미엄 제품과 현지 맞춤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급변하는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인도 현지 매체 사크시포스트 등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5월 8일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열 예정이다. 총 투자 규모는 약 500억루피(약 8200억원), 부지 면적은 약 300에이커(약 37만 평)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7에이커는 현지 주 정부가 지원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약 1500개의 신규 일자

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현지 주 정부의 투자 승인으로 기공식 준비가 마무리됐다”며 “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공장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공장에서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등 주요 생활가전이 생산된다. 인도 내 가전 시장이 중저가 중심에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LG전자는 고급형 제품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온다습한 기후와 섬유 사용이 많은 생활환경 등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제품도 함께 생산될 예정이다.

스리시티는 인도 주요 항구인 첸나이에서 약 50km 떨어진 물류 요충지로,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생산과 수출 모두에 유리한 입지다. LG전자는 이 같은 물류 및 인프라 강점을 활용

용해 생산·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도 방갈로르에 위치한 LG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통해 프리미엄 현지형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LG전자 인도 법인은 최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공개(IPO) 승인을 받아 약 15억 달러(2조 2000억원) 규모의 현지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LG전자는 이번 투자가 인구 14억 명의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중동·아프리카 수출까지 겨냥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리시티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빛나·이혜민 기자 vitna@metroseoul.co.kr

현대차, 인도네시아서 ‘수소 생태계’ 조성

매립지 바이오가스로 수소생산 실증
충전소 구축 등 W2H 생태계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자원 순환형 수소 솔루션(W2H·Waste-to-Hydrogen)을 구축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현대차그룹이 해외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첫번째 실증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 시각) 자카르타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서밋 2025’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 홀딩스와 함께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수소협회(IFHE) 주최로 열렸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바흐릴라하달리아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관계자 및 관련 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 생산 실증 모델을 해외로 확장한 첫 사례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반둥시 인근 사리묵티 매립지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리묵티 매립지는 반둥시 폐기물의 약 80%를 처리하는 곳으로,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립지 개발 전문 기업 세진지엔이와 협력해 복도를 통한 재해 예방과 동시에 수소 생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현대로템의 수소 개질기를 포함한 수소 생산 설비가 투입되며, 컨소시엄 참여 기관인 제아이엔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이 한국의 수소 정책과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서부 자바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2027년까지 수소 개질기 설치 및 충전소 구축을 마무리하고, 페르타미나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운송 및 모빌리티 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매립지 인근 지역에 식수 지원 및 보건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수소 로드맵의 대표 사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청정 수소 생산 거점 구축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드류 퍼거슨 전 美연방하의원 영입

통상 압박에 워싱턴 연결 고리 마련
관세돌파·현지투자 협력 총괄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미 의회 공화당 4선 출신 드류 퍼거슨 전 연방 하원 의원(사진)을 전격 영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후폭풍 속에서 미국 측과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 시간) 드류 퍼거슨 전 연방 하원의원을 오는 5월 1일부터 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퍼거슨 소장은 미국 정부, 의회와 현대차그룹 간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워싱턴사무소에서는 로버트 후드 전 미국 국방부 법제처 차관보가 현대차의 대관 업무를, 크리스토퍼 웬



크 전 미국상공회의소 수석 국제정책국장이 기아차의 대관 업무를 각각 이끌었다. 퍼거슨 소장은 그룹 차원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퍼거슨 소장은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의 4선 하원의원 출신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미국 입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책 조율 경험을 갖고 있는 퍼거슨 소장이 자동차,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미국측의 협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K-조선, 수주 풍년에 ‘생산여력’ 확보 총력

수주 물리지만 도크는 포화 상태
IMO 탄소세에 친환경 선박 수요 ↑
필리핀 중심 동남아 생산분산 가속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K-조선이 글로벌 수요 확대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재료로 수주 랠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생산설비가 한계치에 가까워지며 각 사는 해외 생산기지 확보 등 건조 역량 분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오는 2027년부터 5000톤이상 대형 선박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탄소세 제도를 도입한다.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 집약도를 측정해 감축 목표치인 ‘티어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의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박 발주 급증으로 수요에 조선사들이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도크 부족 등 인프라의 한계가 부담으로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D현대 주요 조선 계열사들은 현재



HD현대중공업이 27일(목)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Diego Silang)함’의 진수식을 개최했다.

대부분 가동률이 95%를 넘어서며 생산능력의 최대치에 근접한 상태다. 특히 HD현대삼호는 지난해 평균가동률이 116.2%에 달했으며 생산가능시간보다 16.2% 초과해 공장을 돌리는 등 생산 과부하 상태에 놓였다.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 역시 각각 98.9%, 97.1%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추가 수주에 대응할 물리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 또한 생산능력을 초과한 고강도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회사의 조선 부문 가동률은 112%에 달한다. 한화오션도 같은기간 가동률 100.4%를 기록하며 설비 한계치 이

상을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생산 일정의 유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선사들은 해외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등 건조 능력 분산 및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조선소 생산기지를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 3월에는 HD현대마린엔진이 HD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295억원 규모의 선박엔진을 수주했다. 해당 엔진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될 11만 5000톤급 탱커 4척에 탑재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 코르벳함을 인도하며 최근 거론된 수빅조선소 인수 검토와 맞물려 동남아시아 거점확대 움직임과 연결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인정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화오션도 필리핀 수빅조선소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 생산 기지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전, 베트남과 원전·에너지 신사업 강화

하노이서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정부와 국영 기업들을 만나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원전 및 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전을 포함한 ‘팀코리아’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베트남의 주요 관심분야인 원전 사업구

도, 자원조달, 금융지원제도,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14일에는 양국 장관급 협의체인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 고위 인사들과 면담했다. 한국의 베트남 원전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전은 산업공동위원회에서 베트남 송전공사와 전력망 및 에너지 신사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AC 송전망 구축 및 운영 등 전력망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MAIN
CHAIN
AIM
AGAIN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의 중심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써 온 SK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미래 산업을 정조준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등록 마감… 국민의힘 ‘4강 경쟁’·민주당 ‘3파전’

한동훈, ‘3·4·7’ 성장비전 제시
나경원, G5-AI강국 공약 발표
홍준표, 정치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
김문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방문
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출마
野5당, 내란세력 제집권 저지 연대

거대 양당의 제21대 대선 당 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국민의힘 주자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며 1차 경선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주자 2명의 3파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2차 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를 추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은 빠르게 자신의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성장, 세 부담 완화, 복지, 물가 안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3·4·7’ 성장비전을 제시했다. ‘3·4·7’ 성장비전은 AI G3(세계 3대 AI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G5-AI강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AI 공약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막고 있는,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부터 국회에서 처리하길 촉구한다”며 “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거짓말 공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고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



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②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③ 김문수(왼쪽)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 현안 관련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④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1% 높여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이루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1·4·5’ 비전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 합류했다. 이만희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 강승규 의원이 상황실장, 박상용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 임종득 의원이 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한 전 대표와 나 의원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 대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조기대선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 한 전 대표 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그 발언은 (나 의원) 계엄을 옹호하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오늘의 조기대선을 만든 후보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국가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를 폐지하는 대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서울 상암동 소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된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뒤로 민주화도 안됐고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광주에서 피 흘리는 것을 봤다”며 “박 전 대통령 땀 총을 써서 누가 사망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모두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들이 민주와 운동한다는 이름으로, 두 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하는 3파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직접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을 통해 헌정을 지켜낸 헌정수호세력

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연대, 연정을 통해서만 다음 대선 이후 들어설 대선 승리 통해 들어설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1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종자 수색을 당부했다.

한편,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원탁회의를 열고 헌정 수호세력이 내란 세력 제집권을 저지하자며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특검법 실시,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을 합의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최대한 유예해야”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이완규·함상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한덕수 대행, 트럼프와 협력 합의
조선, LNG, 무역균형에 관심 보여
시급현안 중심 12조 추경 제출 예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해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 것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로 대결과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큰 원칙을 합의했고 양 정상이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기반해 경제안보전략TF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오전에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주재했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시피 미국발 충격이 있다”며 “관세가 현실로 됐을 때 영향받는 업종을 지원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장관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2조원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후 물러나게 될 윤석열 정부를 ‘큰 선물을 받았는데,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간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가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률, 세수, 조세 부담률, 가계소비 증가율, 기업투자,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 자영업자 폐업 수치 등이 문재인 정부 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는 세가지”라며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2022~20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였다. 물가상승률이 6%가 넘었고,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행 때 오버슈팅(균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다”며 “부채에 의존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8년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 자체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기는 없지만 체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민주당 “한 대행, 임명 권한 없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진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24시간 금융 서비스’… 보험업계, 고객 편의성 혁신 박차

신한라이프, 24시간 금융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보험료납입 등 가능

삼성생명, 계약 전 과정 디지털화
안정적인 비대면 보안 시스템 구축

보험업계가 고객 중심의 편의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시간 금융 서비스를 열고 모든 계약 변경·보험금 청구 과정을 디지털화해 모바일로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이달 ‘24시간 입출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오전 8시~오후 11시30분까지만 입출금 업무가 가능했으나 심야 시간대 금융 업무를 원하는 고객이



보험업계의 변신이 지속되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고객 편의성 혁신 이미지.

늘자 범위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보험료 납입, 대출, 제지급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OCR과 S-Pass(보험금신속지급서비스)를 활용한 ‘자동 지급’ 대상 보험금 청구 건은 휴일이나 비영업 시간에도 즉시 지급된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초 CX(고객경

험)혁신팀을 신설해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고객 편의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 중”이라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고객 관점 혁신’ 기조에 발맞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달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계약 유지·지급 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신계약 가입 프로세스 전반을 모바일·PC로 옮긴 데 이어 이번에는 ‘다자간 영상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계약자 변경이나 사고보험금 청구 등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까지도 비대면으로 바꿨다.

고객은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고 챗봇·채팅 상담 등 디지털 기반 지원도 제공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안정적인 비대면 환경과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국생명도 지난 2~3월에 ‘보험 계약 부활’과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모바일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였다. 계약 부활 서비스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의 부활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신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존에는 서류 작성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을 모바일로 등록해 치매·중병 등으로 직접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모든 과정은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마무리된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도입한 ‘선심사 시스템’을 통해 부활 가능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UNGC 韓協 이사에 황병우 iM금융 회장



iM금융그룹은 황병우 iM금융 회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UNGC는 지난 2000년 유엔(UN) 주도로 출범한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 걸친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한국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10대 원칙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현재 360여 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 중이다.

UNGC 한국협회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확산에 기여한 국내 우수 기업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UNGC 10대 원칙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새마을금고, 프리미엄 카드로 우량차주 확보 본격화

‘MG+ 블랙 하나카드’ 출시
연회비 12만원 바우처 10만원
10~50% 청구할인 혜택 제공

새마을금고가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우량 차주 확보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새마을금고는 하나카드와 함께 ‘MG+ 블랙 하나카드’를 출시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하나카드가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카드다.

연회비는 해외겸용(비자) 12만원이다. 해마다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전월실적과 업종에 따라 이용금액의 10~50%를 청구할인한다.

새마을금고가 프리미엄 카드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미엄 카드란 연회비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장기적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상품을 폭넓게 선보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금고에선 카드 영업을 두고 난처한 기색이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영업에 난항이 예고되면서다.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한 ‘신파일라’ 또한 대거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10만원 넘는 연회비를 내고 카드에 가입할 고객층이 부족하다는 것.

수익성 또한 크지 않다. 영업 수익에서 ‘카드수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자산규모가 가장 큰 금고는 삼성전자새마을금고다.

총자산 7조2490억원으로 영업수익은 2794억원이다. 그중 카드수입수수료는 4억3200만원으로 0.15%에 불과하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중앙회가 직접 기획하는 만큼 금고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타 금고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번 상품이 흥행하기 위해선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과 골프, 홈쇼핑 등 소비여력이 높은 중년층을 겨냥해 출시한 상품인 만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해자카드’ 등 가성비카드가 단종 수순을 밟으면서 프리미엄 카드에 관한 MZ세대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다.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의 가입경로는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MG더뱅킹’ 앱,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사를 통한 가입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입소문에 의지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일선 금고의 영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프리미엄 카드에 관한 수요층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플랫폼사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입점이 필수인 이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 지속… 월세만 오른다

매매 0.39% 전세가 0.22% ↓
월세는 전국서 0.49% 상승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39%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가는 0.22% 하락, 월세는 0.49%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는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 월세는 전분기(0.4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9% 하락했다. 수도권은 0.31% 내렸고 지방은 0.72% 하락하며 전분기(-0.86%)보다 낙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대구(-1.28%), 광주(-1.05%), 인천(-0.96%), 부산(-0.6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0.03% 상승하며 오피스텔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뉴시스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분기(0.02%) 대비 크지 않았다. 인천은 미분양 해소 지연과 분양권 가격 하락 여파로 투자 수요가 줄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22% 하락

했다. 수도권은 -0.16%, 지방은 -0.4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전(-0.76%), 대구(-0.69%), 인천(-0.47%), 부산·세종(-0.43%)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0.01% 상승해 전분기(0.02%)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은

공급 많은 신도시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지속됐다.

월세가격은 전국에서 0.49% 상승해 전분기(0.4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56%, 지방은 0.20% 각각 상승했다. 인천은 1.3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0.97%), 서울(0.44%), 경기(0.43%)가 뒤를 이었다. 인천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형 오피스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서울은 대학가 인근 1인가구 수요 증가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전국 2억2217만원, 수도권 2억3911만6000원, 지방 1억558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1억7694만1000원, 수도권 1억9195만8000원, 지방 1억1818만8000원이다. 월세 보증금 평균은 전국 1652만3000원, 수도권 1802만원, 지방 106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지원 기자 jjw13@

GS건설

자이 새단장 기념 리브랜딩 철학 공유

22년 만에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자이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한 GS건설이 입주민 초청행사를 갖는 등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자이 리브랜딩과 자이갤러리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자이 안 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리브랜딩을 통해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EXPERIENCE INSPIRATION)’을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으로 내세운 자이는 ‘공간의 경험으로 일상의 영감을 얻는다’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자이갤러리에서 열렸다. 약 50명의 입주민이 참석해 자이의 리브랜딩 철학을 공유하고, 자이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리 노하우 팁을 전달하는 등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자이안 데이는 먼저 자이 입주민들의 경험담과 자이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행사가 시작됐다. 자이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 대표가 무대에 올라 진행된 포럼에서는 자이에 거주하며 누린 시간과 자이 브랜드가 입주민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스마트안경 시장 급성장… 삼성·애플 등 시장선점 움직임

글로벌 빅테크, 차세대 플랫폼 주목
M&A·기술협력 등 제품 개발 속도
“올해 ‘XR 대중화’ 원년 가능성”

글로벌 스마트 안경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메타의 선제적 시장 진입에 이어 애플이 새로운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안경 시장은 2024년 8억7880만 달러에서 연평균 29.4% 성장해 2030년에는 41억2930만달러(약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의 중심이 안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 안경 업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메타’다. 메타는 안경 브랜드 ‘레이벤’과 손잡고 2023년 10월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하며 AR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 개발 중인 ‘프로젝트 무한’

/삼성전자

안경의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2024년까지 2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스마트 안경 전체 출하량을 전년 대비 210%나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 같은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메타의 스마트 안경 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했고, 현재는 코드명 ‘하이퍼노바’로 불리는 고급형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이다. 하이퍼노바는 오른쪽 눈 앞에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손목에 착용하는 ‘신경 밴드’를 통해 손 제스처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약 1400달러(약 205만원)로 예



팀 쿡 애플 CEO(왼쪽)이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한 방문객과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애플

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애플도 조용히 반격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는 700g의 무게와 499만 원이라는 고가의 가격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애플은 현재 가볍고 저렴한 ‘보급형 AR 안경’과 맥(Mac)과 연동 가능한 ‘고급형’ 모델을 동시에 개발 중이다. 하드

웨어보다는 생태계 연결성과 실사용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구글도 움직이고 있다. 양사는 XR 전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한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공동 개발 중이다. 향후 스마트안경 형태의 기기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월 CES 체험존에 공개되며 이목을 끌며 XR 생태계를 겨냥한 ‘안드로이드판 비전 프로’로 불리기도 한다.

구글은 최근 시선 추적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에드호크 마이크로시스템’ 인수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스마트안경은 단순 웨어러블을 넘어, 인공지능·클라우드·운영체제가 융합된 차세대 플랫폼의 주된 전장”이라며 “메타가 선점한 시장에 애플, 삼성, 구글 등이 본격 진입하며 2025년은 ‘XR 대중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 ‘휘센 쿨’ 출시… AI 에어컨 시장 정조준

맞춤형 냉방 ‘AI 바람’ 기능 탑재
창호형·이동식 등 라인업 확대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탠드형 에어컨 ‘휘센 쿨’을 출시하고, AI 에어컨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낸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의 올 1분기 스탠드형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약 60% 증가했으며, AI를 탑재한 스탠드 에어컨 ‘타워’, ‘뷰’는 판매량이 2배 늘었다.

이러한 호조에 출시한 휘센 쿨은 사용자의 생활 환경과 사용 습관을 학습해 맞춤형 냉방을 제공하는 ‘AI 바람’ 기능과 사용 후 내부 습기를 자동 건조해 위생을 유지하는 ‘AI 건조’ 기능을 탑재했다.

절전 기능도 강화됐다. LG 씽큐 앱의 ‘절전 플레너’ 기능을 이용해 하루 사용 시간과 전력 사용량을 설정하면 목표 초과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전기



‘휘센 쿨’

/LG전자

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휘센 쿨은 정기 방문 관리가 포함된 구독형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하다. 케

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분해 세척, 필터 교체, 성능 점검 등 전문적인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척 과정 중 파톤치드와 자외선(UV) 살균도 함께 이뤄진다.

휘센 쿨 출하가는 225만~235만원 수준이며, 구독형 서비스 이용 시 월 5만~8만 원대의 요금이 부과된다.

LG전자는 스탠드형뿐 아니라 벽걸이형 설치가 어려운 공간을 위한 창호형·이동식 에어컨도 이달 중 선보인다. 특히 이동식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기존보다 약 35% 높은 냉방 성능과 33% 낮은 소비전력을 기록했다.

장석훈 LG전자 ES사업본부 RAC사업부장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공간에 최적화된 AI 에어컨으로 냉방 혁신을 이끌면서 AI 에어컨 시장을 지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혜민 기자

한국엔컴퍼니, ‘IAA’ 운영… 임원 소통 혁신

〈인공지능 단톡방〉

첨단기술 기반 조직역량 강화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최근 ‘인공지능 단톡방(IAA·Insight Ai Agent)’을 운영하며 임원 역량·소통 혁신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매일 임원들이 주제 제약 없이 콘텐츠와 의제를 제시하면 IAA가 도우미를 자처해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이다.

IAA 도입은 지난해 10월 경영전략 혁신회의에서 조현범 회장(사진)의 피드백으로 시작됐다. 조 회장은 IAA에서 콘텐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임원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조 회장은 이달 초 채팅방에서 “한온시스템 등 그룹 전 계열사 임원들도 함께 IAA로 소통하자”며 참여 범위 확대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IAA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부문을 넘어 해당 콘텐츠의 시사점, 임원들이 체크해야 할 인사이트 핵심까지



제시한다. 구성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소통이 심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 플랫폼

의 ‘임원 혁신 채널’로 이관돼 논의가 확장된다. 모든 콘텐츠와 댓글·반응은 별도 대시보드로 집계돼 참여도·협업 지표 통계로도 활용된다.

한 임원은 “기존 보고서 기반의 내부 회의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솔직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서중철 경영혁신담당 상무는 “AI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구성원들의 정보 감수성을 높이고, 토론·연결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IAA는 향후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에어로-WB그룹, 폴란드 합작법인 설립 추진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

텀시트 계약… 유럽 방산 블록화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유럽 현지화에 나선다.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내세워 역외기업을 배제하려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텀시트(Term Sheet)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텀시트는 계약과 관련된 주요 원칙 및 조건을 명시

한 합의서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사업부장과 배진규 유럽법인장(HAEU), 임훈민 주 폴란드 대사,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피오토르 보이첵 WB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합작법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1%, WB그룹의 자회사인 WB Electronics(이하 WBE)가 49% 비율로 출자에 설립된다. 합작법인은 향후 폴란드 군에 추가 계약을 통해 공급할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탄(CGR-080)의 현지 생산은 물론 향후 유럽시장으로의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2022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폴란드 군비청에

80km급 유도탄(CGR-0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 수출하면서 총 7조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생산 역량 강화 및 ‘유럽 재무장’ 계획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부환 사업부장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략적파트너로서 자리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폴란드 양국의 방산 역량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SK이노 E&S, 국내 기업 ‘RE100’ 돕는다

JB금융-이너젠 3자 업무협약 체결

SK이노베이션 E&S가 JB금융지주, 탄소전문 컨설팅기업 이너젠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JB금융지주, 이너젠과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PPA 전용 금융상품 출시 ▲PPA계약-대출 간 상호 연결 ▲PPA 홍보 및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

며 PPA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첫 실질적 성과로 JB금융그룹의 전복은행과 광주은행이 SK이노베이션 E&S 및 이너젠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1금융권 최초 민간 RE100 이행을 위한 PPA 전용 시설물 담보대출을 개발 및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 E&S 이진모 재생에너지사업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민간재생에너지 PPA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국내 시장 환경 속에서 PPA 공급 자원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참가업체 줄고 볼거리도 사라져” 서울모빌리티쇼, 존속 논란 ‘가열’

명칭 바뀐 뒤 참가업체 줄어
비용은 높는데 홍보는 ‘미미’
행사 지속 여부에 우려 확산
“건설적 논의 통한 변화 필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관람객 56만명이 다녀가면서 막을 내렸지만 ‘서울모빌리티쇼’의 지속여부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전시회 규모와 참가업체 감소, 비용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위원회와 참여업체들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3일 막을 내린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는 총 56만명이 방문해 지난 2023년 행사(51만명) 대비 10%가량 방문자가 늘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BMW, BYD 등 국내외 12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해 21종의 신차를 공개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1995년 ‘서울모터쇼’로 출범 후 2019년까지 행사 명칭을 유지했지만 이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AI·로보틱스까지 기술 경계를 허무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 아래 명칭을 변경했다. 다만 명칭 변경 후 참가업체들의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완성도 하락이란 악평을 받고있다.

실제 이번 모빌리티쇼에 불참한 자동차 업체는 한국의 완성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GM코리아를 비롯해 테슬라, 볼보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렉서스·토요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지프·푸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링컨),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불참한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모빌리티쇼의 비싼 참가비용과 낮은 홍보 효과가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서울모빌리티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원인으로 보인다.

참가 회사가 부스 설치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최소 억원 단위이다. 부스면적이 넓을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빌리티쇼 기간 중 부스 설치에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모빌리티쇼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11일간 행사에 수십억원을 쓰기에겐 업체에도 부담인 것이다.

서울모빌리티쇼가 벤치마킹하겠다는 CES 일정은 5일 미만이지만 서울모빌리티쇼 일정 축소는 실현되기 어렵다. 대중 관람객을 위한 전시회라는 점을 감안해 조직위원회가 주말(토, 일요일)을 두 번 넣는 현 일정을 고수할 것이고, 일정이 축소되면 입장료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 업체들은 모빌리티쇼 자체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서울모빌리티쇼에는 불참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행사의 완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11일 동안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불참을 선언하는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조직위가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주요업체의 불참 원인과 참가업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보된 쇼를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 최기성 사무국장은 “서울모빌리티쇼가 완성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빌리티’ 전반에 걸친 전시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다고,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모빌리티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불참 업체들과 올해 참석한 업체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엔솔 “‘명품특허’로 핵심기술 선제 보호”

2025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
“기술개발 동시에 포트폴리오 구축”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 중이며 그 핵심은 명품특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이자 최조인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도전과 도약을 통한 선제적 핵심기술 개발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확보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15일 ‘2025년도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 ‘기업의 고품질 특허 창출 노력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과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명품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명품특허’는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낮아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를 뜻한다. ▲우수한 기술성 ▲넓은 권리범위 ▲강한 특허보호 수준 등으로 결정되며 기술경쟁이 심화된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다.

이 전무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선제적 핵심기술 개발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고인 명품특허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인 국가적 핵심 산업에서 미국,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주요 격전지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명품특허’를 선점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품특허는 단순한 기업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창출, 활용, 보호’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P R&D’ 문화를 정착시켜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지난 2월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등록은 약 4만여 건, 출원은 약 7만2000여 건으로 현재 전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특허를 확보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후발기업의 기술 도용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여 건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2026 아반떼 외장.



아반떼 N 내장.

‘아반떼’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선두 굳힌다

연식변경으로 상품성 한층 강화
하이브리드·고성능 N라인 풀 구성

현대자동차가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준중형 세단 시장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

현대차는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아반떼’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6 아반떼는 고객 선호 사양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으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모던 라이트’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버튼시동과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앞도어 포켓 라이팅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중간 트림인 ‘모던’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톱앤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곡선로)이 기본화돼 주행 안전성과 편리함을 높였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모던 라이트는 스마트 트림을 기반으로 가죽 스티

어링 휠(열선 포함), 가죽 변속기 노브, 1열 열선 시트를 기본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아반떼 N 라인업도 확대됐다. 현대차는 고성능 N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춘 ‘N팬(Nthusiast) 패키지’를 선보였다. 해당 패키지는 N DCT 패키지, N 스마트 센스 I-II 사양을 공통으로 담고 있으며, 여기에 도심형 ‘시티 팩’은 N 컴포트 사양을, 트랙 주행에 초점을 둔 ‘트랙 팩’은 N 라이트 스포츠 버킷 시트를 포함한다. 패키지 가격은 개별소비세 5% 기준 개별 선택 대비 100만원 낮춰 제공된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 기준 ▲스마트 2034만원 ▲모던 2355만원 ▲인스퍼레이션 2717만원이며 ▲N라인은 2806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2523만원 ▲모던 라이트 2549만원 ▲모던 2789만원 ▲인스퍼레이션 3115만원 ▲N라인 3184만원이다. 고성능 N(가솔린 2.0 터보)는 3309만원, LPi 모델은 ▲스마트 2172만원 ▲모던 2492만원 ▲인스퍼레이션 2842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中企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개선

전통시장 특례·車매매업 기준 완화
“지방규제 풀면 기업활동 증가 도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성장 걸림돌이었던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노외·부설 주차장 활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위 법령에선 규제가 풀렸지만 자치법규 등에는 적극 반영을 안한 경우, 중앙부처보다 규제 강도가 더 쎄는 법규 등을 중심으로 21개 과제, 1034건을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매

매업 13건, 주차장 154건, 도로연결 70건 등 총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와 관련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국토계획법령 등과 비교해 용적률, 건폐율 등 입지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해당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22년 당시 표준조례안을 제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조항을 예전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도 요구해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에도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시 자동차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김승호 기자 bada@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홍범식 “AI, 국가 대항전 진입… 국회·정부·산업 협력 절실”

〈LG U+ 대표〉

과방위원·관계자 50여명 초청
LLM 엑사원, sLM 익시젠 소개
“윤리·실용성 갖춘 AI 개발할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 정의하며,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범식 대표는 15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과방위 위원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AI 기술 시연과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홍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후발주자이지만 이를 결코 늦었다고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형두 간사,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정동영 의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뒷줄 왼쪽부터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부장, 한민수 의원, 조인철 의원, 이정현 의원, 이훈기 의원,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LG유플러스

그는 이어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잘 만든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연에서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과 이를 경량화한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ixi-GEN)’이 소개됐다.

LG유플러스는 이 모델을 활용해 콜

센터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챗봇 등 다양한 B2B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상담 분석 및 요약이 가능한 ‘AI 컨택센터(AICC)’ 기술은 의료·금융 등 다수 산업군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LG유플러스의 AICC는 STT/TA(음성인식·텍스트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연어 이해도와 상담 응답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상담 중 핵심 키워드에 기반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상담지원, 상담 내용 자동 요약 및 분류, 챗봇 및 자동 QA 기능 등 다양한 고도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LG AI연구원은 기업용 챗봇 ‘챗 엑사원’의 실제 구동 모습을 시연하며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LLM)로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엑사원 3.5’는 전문 산업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한 모델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했다. 특히 엑사원 3.5는 최근 스탠포드대학교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가 작성한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국내 유일의 주목할만한 AI 모델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AI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진입했다”며 “한 기업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과방위 위원들의) 방문이 민간과 국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LG는 앞으로도 AI 기술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도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율을 주는 AI 기술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참관한 과방위원들도 LG의 기술력과 철학에 공감을 나타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LG는 제조업과 통신을 모두 갖춘 독보적 기업으로,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김현 의원과 최형두 의원도 “AI 생태계 완성과 사회적 활용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 입법·정책·R&D 협력까지 포괄하는 다각적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AI 인재 양성, 규제 정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아태·미주지역으로 AX사업 확대 “코딩·지시수행·이해능력 향상된 GPT-4.1”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서 협력
구글의 제미니·버텍스AI 활용해
제조·금융 등에 서비스 구축 계획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 지역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LG CNS는 현신균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행사에서 구글 클라우드 CEO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카란 바즈와 등을 만나 양사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15일 밝혔다.

LG CNS는 클라우드·인공지능(AI)



현신균 LG CNS 사장(오른쪽)과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가 아태 및 미주 지역에서의 클라우드 기반의 AX 사업 다각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기술력과 산업 전문성, 정보기술(IT) 서비스 역량을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클라우드 솔루션과 결합해 아시아

태평양과 미주 지역 고객사의 전사적 AI 도입을 돕는다.

LG CNS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와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플랫폼 ‘버텍스 AI’ 등을 활용해 제조·금융·유통·통신·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백개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급성장하는 헬스케어·바이오 AX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연구원들이 의약품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도록 AI 에이전트, 유전체 데이터 분석 및 단백질 구조 예측 신약 개발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고 LG CNS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카카오엔터 웹툰신작 4종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 4월 화제의 신작 4종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지난 1일 론칭한 ‘나는 한 편의 극을 보았다’와 ‘암흑명가 천재 만나니까 되었다’는 동명의 웹소설을 웹툰화한 노블 코믹스다. 원작의 서사를 흡인력 있게 그려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16일 공개되는 카카오웹툰 ‘연습생’은 조회수 4억회를 기록한 ‘나의 빛나는 세계’ 등으로 잘 알려진 마루 작가의 신작이다.

카카오웹툰의 인기 무협 웹툰인 ‘허약선생’도 오는 18일 시즌4로 복귀한다. 철범 작가가 쓰고, 울펜 작가가 그린 ‘무협 아카데미’ 장르의 작품이다.

/김현정 기자

SKT-SK텔링크 “손쉽게 기내 와이파이 연결”

‘T 기내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

SK텔레콤이 SK텔링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내 통신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T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은 고객이 사전에 한 번만 가입하면, 별도의 바우처 입력이나 인증 절차 없이 기내에서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서비스다.

기존 기내 와이파이 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여부 확인과 사전 결제, 탑승 후 포털 접속 및 회원 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SKT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T로밍 홈페이지나 공항 로밍 센터에서 간단히 가입만 하면, 탑승 후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자동 인증 방식에는 ‘패스포인트’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 끊김 없는 연결과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항공 서비스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SK텔링크는 SKT의 고객 인증 시스템과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위성통신 기술을 결합해 항공 환경에서도 자동 인증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현재 자동 로밍 방식은 대한항공 일부 항공편에서 우선 제공되며, SKT는 향후 국내 주요 항공사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바우처 방식은 대한항공 외에도 카타르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캐나다, 에티하드 등 5개 항공사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오픈AI, API 통해 모델 3가지 공개

오픈AI가 14일(현지 시간) 코딩, 사용자 지시 수행, 장문 맥락 이해 능력이 대폭 향상된 GPT-4.1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날 오픈AI가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한 모델은 GPT-4.1, GPT-4.1 미니, GPT-4.1 나노 등 모두 세 가지다.

이번에 공개된 GPT-4.1 미니는 소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능 평가에서 전작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GPT-4.1 나노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모델로, 분류나 자동 완성처럼 실시간성이 중요한 작업에 적합하다. GPT-4.1은 자율적으로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 늘었고, 프론트엔드 개발(사

용자가 직접 접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화면을 만드는 것)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장문 맥락 처리 능력도 업그레이드됐다. GPT-4.1은 세법 규정처럼 복잡한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블루 제이(Blue J)’의 세무 시나리오 평가에서 GPT-4o 대비 53%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또 톰슨 로이터의 AI 법률 도우미 ‘코카운슬’에 GPT-4.1을 도입해 테스트한 결과, 문서 리뷰 정확도가 전작과 비교해 17% 향상됐다. 모순되는 조항이나 보안 문맥을 정확히 식별해냈고, 법률 분석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교한 문서 해석 능력이 강화됐다. GPT-4.1 시리즈는 현재 API를 통해서만 제공된다.

/김현정 기자

KT-JTS, 태국어 LLM 상용화 성공

국내기업 최초 해외에 AI 인프라 구축

KT가 국내 기업 최초로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을 수출했다. KT는 태국 자스민테크놀로지솔루션(JTS)과 함께 추진한 태국어 거대언어모델(LLM)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에 종합 AI 인프라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어 기반 LLM 모델 개발 ▲AI 운영 환경 ‘LLM 오퍼스(Ops)’ 구축 ▲GPU 팜 조성 등 AI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전 과정을 망라한 ‘올인원’ 방식으로 진행됐다. KT는 자회사 KT클라우드 및 LLM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와 협업해 1년 만에 인프라부터 모

델까지 일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KT는 ‘LLM 오퍼스’를 통해 JTS가 복잡한 AI 학습 및 운영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태국 현지에 GPU 팜도 조성해 향후 AI 구독 서비스(GPUaaS)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가장 큰 성과는 태국어 특화 LLM의 상용화다. KT와 업스테이지가 공동 개발한 이 모델은 태국어를 포함해 영어, 한국어를 지원하며, 방대한 현지 데이터를 학습해 정치·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한다. 이는 현지와 측면에서 높은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K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AI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김서현 기자

환율·지배구조 등 곳곳 지뢰밭… 국민연금, 수익률 어찌나

작년 말 국내주식 수익률 -6.9%
해외투자에 ‘환헤지’ 수익성 저해
홈플러스 투자금 9000억 날릴 위기

운용인력 이탈에 인력부족도 문제
1인당 운용규모 네덜란드의 10배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 기회 발굴과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낸 국민연금 수익률(15%) 두고 자평한 말이다. 하지만 올해는 웃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잘나가던 국민연금의 앞날에 암초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어 운용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금 수익률을 갈아먹는 원·달러 환율도 방어해야 할 처지다.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 투자금도 날릴 위기다.

◆트럼프 리스크에 흔들리는 국민연금 수익률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심의 연기금 투자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9조 990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초



ChatGPT로 생성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민’ 이미지.

부터 지난 10월까지 4760억원가량을 순매도했던 행보와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특히 12.3계엄사태 이후 7조7672억원가량 사들였다.

저가 매수 운용전략도 있지만 K증시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 정부 압박에 연기금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오히려 받아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18일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6.9%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34.3%에 달한다. 국내 채권(5.3%)이나 해외 채권(17.1%) 수익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마저도 지난해 10월 이후 트럼프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지루한 옆길름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현재 -6.5%로 부진하다.

나스닥 등 해외시장 부진도 수익률에 우려를 낳는다. 나스닥 지수가 1분기 10.4% 하락했고, S&P500도 4.6% 내렸다. 일본도 10.6% 하락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CIO)는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 기자설명회에서 해외주식을 중심으로 전체 운용기금 중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환율 방어에도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 4850억달러 중 10%에 대해 환 헤지(he

dge·위험 회피)를 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가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100% 환 오픈(환 헤지 0%) 전략을 취해왔다. 환 헤지를 하면 해외 자산까지 원화 자산으로 바꾸는 셈이라 분산투자 효과가 반감된다. 또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올라 자산 가치 하락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환 헤지는 이런 조절 기능을 차단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비상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렸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도 날릴 위기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000억 원을 투자한 등을 포함해 9000억 원을 날릴 위기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률 검토 중이다.

◆낙후한 지배구조, 수익률 발목

국민연금 자체 리스크도 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운용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역은 362명으로 정원(415명) 대비 5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본부 1인당 평균 운용 규모는 2014년 1조7000억원에서 2024년 3조 2000억원으로 10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전 세계 연기금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연금(CPPIB)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 7000억원 운용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최대 10배 많다.

지배구조 또한 수익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체계 개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정부의 국내주식 부양 필요성, 일부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중장기 목표비중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며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금운용위원은 시장의 부당한 요구 및 압력에 대응하기 어렵고 선임 및 임기 연장 권한이 정부에 있는 전문위원은 ‘정무적 판단’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기금 지배구조 연구로 저명한 키스 엠바시어의 연구에 따르면, 연기금 지배구조의 개선이 2%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투심 위축·구설수 등 기업 IPO 퇴짜 잇따라

카카오엔터 ‘쪼개기 상장’ 논란 중단
제노스코 ‘중복 상장’ 논란 IPO 무산
LS그룹 ‘중복 상장’ 주주 불만 토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의 확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업공개(IPO)를 접거나 퇴짜를 맞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새내기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곳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휩싸인 점도 IPO 시장의 활기를 빼앗는 모양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증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쪼개기, 중복상장 논란으로 IPO를 접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앵커에쿼티파트너스(앵커PE)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에게 서한을 보내 경영권을 매각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3년 사우디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GIC)에서 1조1500억원을 투자받으며, 약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IPO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 카카오엔터는 2019년 카카오페이지 시절부터 IPO를 준비해 왔으나 ‘쪼개기 상장’ 등 논란과 시장 불확실성 탓에 상장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항암제 ‘렉라자’ (성분명 레이저티닙)를 처음 개발한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 결

론을 내면서다.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039200)과 렉라자의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매출 구조 탓에 발생한 ‘중복 상장’ 논란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IPO시장 주변의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LS그룹은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9곳 등에 대한 추가 상장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이라는 등 정치권의 비판도 들끓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운용, 자산관리 솔루션 ‘엠로보’

‘중관여 투자자’ 새 수요층 정조준
18일 하나은행 앱으로 첫 서비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 ‘엠로보(MROBO)’를 통한 ‘AI 기반 초개인화 자산관리 솔루션’을 내놔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중관여 투자자’라는 새로운 수요층을 정조준한 점이 눈길을 끈다.

1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 기반 연금관리 서비스 ‘엠로보(MROBO)’의 출시를 공식화했다. 첫 서비스는 오는 18일 하나은행 앱을 통해 시작된다. 연내 국민은행, 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을 포함한 8개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객이 평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미래에셋이 글로벌 투자역량과 AI 기술을 집약해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ETF 플랫폼인 ‘글로벌X’ 인수를 통해 확보한 전 세계 운용 네트워크와 연계된 AI 솔루션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엠로보의 개발과 운영은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가 맡는다. 단순한 투자자문 수준의 ‘자문형 로보’가 아닌 고객의 투자성향을 반영해 실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일임형 로보’라는 점에서 시장 내 차별화를 꾀했



15일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M-ROBO’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손수진 대표가 ‘연금 2.0 시대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다. 특히 작년 12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퇴직연금 분야 일임형 로보 서비스 인가를 받은 점이 기반이 됐다.

손수진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은 투자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고객 중심의 구조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스스로 펀드 교체 시점과 자산배분을 고민하는 ‘고관여 투자자’와 ‘중관여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엠로보는 이 같은 투자자층을 위한 대안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중관여 투자자란 “TDF(타깃데이트펀드)를 맡기기엔 애매하고, 스스로 전면 운용하긴 부담스러운 투자자”다. 이들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자산관리와 리밸런싱에 적극 개입하지 않기에, 자동화된 일임 서비스가 필요한 투자군이라는 설명이다. 엠로보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12개의 AI 알고리즘 기반 모델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복현, 홍콩서 글로벌IB 만나 투자 독려

한국 시장 신뢰회복 등 약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재개 배경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투자자설명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

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예측가능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당국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글로벌 IB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IB들은 규제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집행을 주문했고, 이 원장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의적 위반엔 엄정 대응하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법·제도 개편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이 원장은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배당 절차 정비,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K-소비재, 해외시장 맞춤형 공략 뷰티·푸드 등 ‘이커머스 수출’ 박차

산업부·코트라, 소비재 수출대전
美·日·동남아 바이어 200곳 초청
美 면세 폐지로 韓 제품 경쟁력 강화
현장계약 26건, 550만弗 규모 성과
할랄·프랜차이즈 신시장 개척 박차

정부가 K-푸드와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5일~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30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총 1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K-뷰티와 K-푸드는 각각 26억달러, 29억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9%, 4% 성장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행사장에는 ‘K-뷰티’, ‘K-푸드’, ‘K-생활용품’ 쇼케이스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을 2000건 이상 진행한다.

유통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관도 운영된다. ‘유통망관’에서는 아마존과 협력해 미국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홍콩발 소매 수입 면세 혜택(미소기준, deminimis)’ 폐지 조치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4월 15일~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 사진은 코엑스에 마련된 전시장 모습. /코트라

고 있다. 또 쇼피, 이베이재팬, 틱톡과 협력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수출도 함께 지원한다.

‘할랄관’에서는 국내 할랄 인증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하고, 국내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인증 인정 제도인 ‘국내 교차인증’을 기반으로 약 20억 명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 100여개사가 참가해 4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진행한다. 한류 콘텐츠 인지도가 높은 만큼, 프랜차이즈 식품 체험, 에듀테크 시연, 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 등 콘텐츠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전용 공간인 ‘바이어라운지’에서는 34개국 200개 바이어가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을 체험하고 리뷰를 공유해 우리 기업이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트라는 통상 애로 접수 및 관세 대

응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119관’과 코트라 수출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코트라 수출상담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상사관’ 등 부스를 운영한다. 그 결과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총 26건, 550만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지난해 코트라 지원으로 일본에 1호점을 개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호주·몽골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A사는 “지난해 바이어 라운지 참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번 상담도 추가적인 시장개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가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라이프스타일의 세계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산 쌀, 뉴질랜드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
뉴질랜드 수출시 검역증명서 불필요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에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에서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만나 쌀 식량원조, 개도국 학교급식 지원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대비 약 3% 개선

환경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발표

이번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3% 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 울산, 제주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작년 12월 1일~올해 3월 31일)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0.3 $\mu\text{g}/\text{m}^3$ 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5차 평균 농도(21.0 $\mu\text{g}/\text{m}^3$)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는 환경부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 오염물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6번째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좋음’(15 $\mu\text{g}/\text{m}^3$ 이하)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다. ‘나쁨’(36 $\mu\text{g}/\text{m}^3$ 이상) 등급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

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평균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차 22.8 $\mu\text{g}/\text{m}^3$ 에서 6차 24.3 $\mu\text{g}/\text{m}^3$ 으로 농도가 6.5% 짙어졌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 27일~3월 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399건으로, 전년대비 43.7%(310건) 감소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출기업 인증 동향·대응전략 공유

국표원 등 전문가 1대 1 현장 상담 진행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인증 관련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설명회와 1대 1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 문의가 많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의 최신 인증 동향, 심사 절차, 서류 작성 등 실무중심 정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가 사전 신청한 기업과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5월 8일), 대구·경북권(6월 4일), 부산·

울산·경남권(6월 25일), 전라권(7월 16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IT·전기전자, 섬유, 기계·조선, 화학물질 등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인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권역의 인증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전용길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율 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의 3각 파고가 겹쳐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표원은 산업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비스·금융 분야 협정논의 본격화

한·중 FTA 11차 후속협상 개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금융 후속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FTA 후속협상이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10차 공식협상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국 대

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2015년 FTA 협정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자율제조 확산

AI·로봇도입 지원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자율제조 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끌어모은다. 산업부는 15일 대구에서 산업단지와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4대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한국로봇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제조로봇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세미나와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약 12만 개의 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갖추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율제조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같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의 로봇 도입 지원 ▲로봇 도입 관련 정책 및 사업 협력 ▲로봇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엄마의 사랑으로 구워낸 모애뜰 누룽지



- ✓ 100% 국내산 원료
- ✓ 200kcal 이하의 저칼로리
- ✓ 황동판에 구워낸 전통의 맛
- ✓ 50g 한팩으로 간편하게
- ✓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로



누룽지탕 & 송늬



누룽지 라면



누룽지 김치죽



누룽지 백숙



간편한 식사



레저 활동시



온가족 간식



NAVER

모애뜰



나주시, ‘농기계임대·마을 공동급식’ 등 농가 지원 강화

농기계임대소, 비상근무 체제 전환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운용 뒷받침
335개 마을 공동급식... 7.3억 투입

전남 나주시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영농철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도입하여 농가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우선, 가속화 중인 농촌지역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작업 인력난을 전남 최대 규모의 ‘임대농기계 사업소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통해 공백을 메꾸고 있다.

여기에 바쁜 영농철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마을공동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영농철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영농 집중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나주시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에서 출하 전 임대농기계를 정비하고 있다. /나주시

많은 총 7개 권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유 임대 농기계는 영농형 굴삭기를 비롯해 퇴비살포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4종·1523대에 달한다. 화물차량이 없어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비용은 나주시가 7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과 농가에서 직접 고용한 600명을 포함해 총 660명의 근로자를 현장에 공급한다. 하반기 140명까지 더하면 올해 총 800명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영농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근로자들이 지난달 라오스 계절근로자에 이어 17일엔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71명이 나주로 온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도입한

가운데 올해도 3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일손이 달려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농업인을 위해 마을 여건에 따라 자체 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등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고 건강도 챙기면서 마을 화합까지 다진다는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시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올해 지원 목표는 251개 마을이었으나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7억3000만원을 들여 공동급식을 신청한 335개 전체 마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부지깡이도 한 뭉거든다는 바쁜 영농철 나주시가 마련한 ‘3종 지원 세트’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포함해 든든한 한 끼를 챙기는 마을 공동급식이 마을 화합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KB국민은행, ‘작은도서관 사업’ 맞손

울진군은 지난 14일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이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성작은도서관은 130㎡ 규모로 공간 확장 등 재구성을 마친 후 내달 재개관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목포시

수산식품산업 실무 TF 운영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 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 추진 TF(특별작업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1일 해양수산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실무 추진 TF를 구성하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진주시, 내달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내달 2일 개최식... 2만명 참가 예정

경남 진주시는 경남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018년 개최 이후 7년 만에 다시 진주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내달 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되며 36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강한 진주에서 하나된 경남의 힘’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번 대회는 미래·문화·스포츠제전을 표방하며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문화예술행사, 산업기술, 체육이 어우러진 축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사상 최초로 축구·배구·농구 종목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를 실시하여 촬영된 영상을 관객들이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진주종합경기장

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AAV 시제기 전시를 포함한 우주항공테마관을 열어 진주시의 미래 산업이 드러나도록 하는 ‘미래체전’으로 펼쳐진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진주시의 대표 봄 축제 ‘진주논개제’를 연계 개최해 진주시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시가 가진 역사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전’으로 치러진다.

뿐만 아니라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이후 진주시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제대회인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발상지 진주시의 자부심을 담은 파크골프 홍보 체험관 운영, KSPO 스포츠가치센터의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스포츠 체험 행사가 펼쳐지는 ‘스포츠제전’으로 추진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덕군 일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경북 동해안 지질자원 가치 입증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면적 2,693.69㎢, 포함·경주·영덕·울진 일원)’이 지난 10일 밤(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유네스코의 공식 통보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북한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질유산이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tectonic framework) 형성과 화성활동(magmatism)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으로, 학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영덕군은 경상북도의 지원을 토대로 포항시·경주시·울진군과 함께

지질공원 전담 기구인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을 중심으로 경북동해안지질공원센터를 운영하고, 안내소, 탐방로, 안내판 등 탐방 인프라 확충과 지질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기관과의 협업 등 유네스코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김광영 영덕군수(사진)는 “2015년 국가지질공원 신청을 시작으로 10년간 경북도와 4개 시·군 지역주민이 함께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and 생태관광지역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완도군, ‘도시 종합개발사업’ 추진

56개소 대상 국비 106억 투입

완도군(군수 신우철·사진)은 국비 106억 원을 투입, 56개소를 대상으로 ‘2025 도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종합개발사업은 도시 지역의 생활 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하고자 행안부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군은 2017년도에 3차 계획을 마무리했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



(총 사업비 1180억원)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106억 원을 투입, 금일읍소랑도·월송리와 보길면 예작리·청별 물양장 확장, 노화읍의 북고리·충도리 선착장 정비, 군외면 흑일도 도로 정비 및 LPG 배관망 설치, 청산면의 노을길 경관 조성 and 여서리 등산로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

특정 후보 지지·비방 행위 등 점검

경상남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공직감찰을 추진한다.

이번 감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비방,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시군과 함께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는 행안부와 경남도가 합동

으로 2개 반 10명 규모로 운영하며 2단계는 시군까지 포함한 20개 반 46명 체제로 대폭 확대해 감찰을 벌인다.

경남도는 감찰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으로, 적발 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빈틈없이 관리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거창군

공모사업 순항... 380억 확보

경남 거창군은 지난달 말 현재 2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8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공모사업 확보 목표액 1000억원 중 3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선정(10억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20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50억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30억원)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선정은 전국 3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에 거창군이 이름을 올렸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온라인 식품거래액 47조… 유통·제조방식 ‘고객맞춤’ 진화

도드람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독’ 원하는 날짜에 매주 정기적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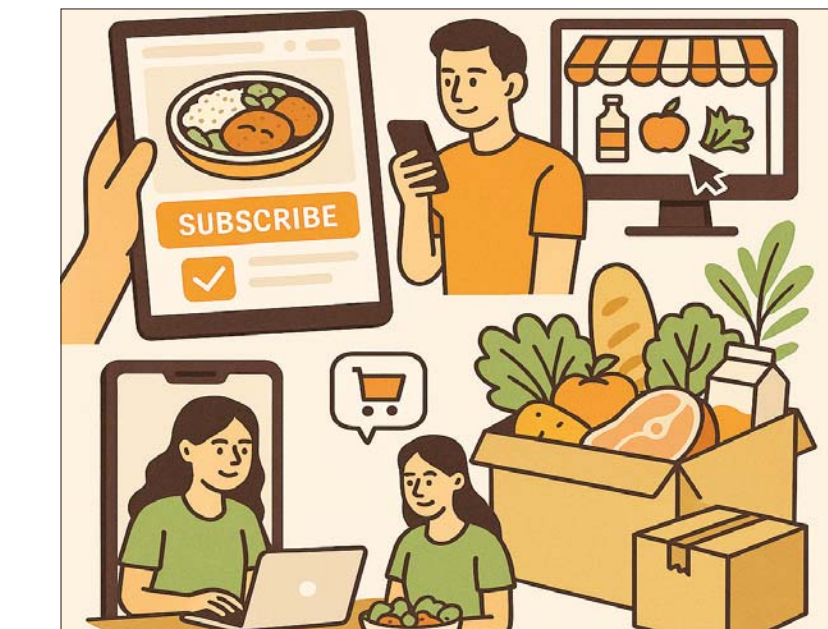
hy 프레딧 ‘식자재 정기구독’ 운영 유제품·두부·계란 등 식재료 취급

풀무원 자체개발 AI 추천서비스 **롯데** 쇼핑앱 ‘롯데마트 제타’ 출시

터치 한 번으로 밀키트, 샐러드, 간편식은 물론 고급 식재료까지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식품 시장이 이제는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식품 유통과 제조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식품 거래액은 47조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2022년도(36조1408억원)와 비교하면 30.1%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이 눈에 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식품 구매자 중 20~39세 소비자 비중은 약 58%로 모든 연



챗GPT로 생성한 식재료 모바일·온라인 구매 이미지.

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식품을 단순 구매 대상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정기구독형 식단, SNS 기반 간식 리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실시간 구매 등 새로운 소비 방식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고단백 간식,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밀키트는

2020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단순한 ‘요리 편의 상품’에서 ‘맛집 웰리티 체험 상품’으로 진화 중이다.

이에 식품 기업들은 앞다퉈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정기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도드람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독 서비스’를

문칭하며 소비자 맞춤형 정기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매주 신선한 도드람한돈 제품과 인기 간편식을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마다 달라지는 상품 구성을 통해 다양한 요리 경험을 제공한다.

hy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프레딧도 식자재 정기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hy의 유제품 외에 두부, 계란 등 다양한 식재료를 취급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계란의 정기 계약 건수와 주문수량은 전년 동원 대비 14.5%, 17.8% 증가했다. 매출 1위 제품인 잇츠온 무항생제 신선란 10구는 정기계약 수가 월 1만건을 넘어섰다.

한 가지 품목만 구매해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는 프레딧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세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적립 혜택도 고객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풀무원의 자사몰 ‘샵풀무원’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추천 서비스를 오픈해 쇼핑 편의 향상을 돕고 있다. 메인 화면에서 취향이 비슷한 다른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알고리즘으로 띄워

추천 신뢰도를 높였다.

유통 기업 중에서는 롯데가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서 진가를 발휘하기 위한 체비에 나섰다. 30여년간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쌓은 식료품 유통 노하우를 온라인에 접목하고, 1조원대 물류 플랫폼 투자를 병행하며 승부수를 띄운 것.

롯데는 이달 1일부터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전용 앱 ‘롯데마트 제타’를 출시했다.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구매 이력을 중심으로 소비 성향과 구매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주고, 고객이 상품 배송 시간을 선택하면 재고 수량을 파악해 배송 시간대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보여주는데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식료품 구매가 활발해진만큼 업계는 차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기 배송 서비스의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락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구매 이력을 토대로 상품 제안을 할 수 있어 추가 상품 구매로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원그룹 ‘글로벌 식품 디비전’ 출범

동원산업이 동원F&B 자회사 편입 국내외 식품 4개사 사업군으로 묶어

동원그룹이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다.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계열사인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Division)으로 묶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

동원산업과 동원F&B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

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

양사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 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Division)’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R&D 조직을 ‘글로벌 R&D 센터’로 통합

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다. 2024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 어획·캔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_S.C.A SA(Societe de Conserverie en Afrique Sa), 캡센_CAPSEN, S A(Compagnie Africaine de Peche au Senegal, Societe Anonyme)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엘포인트 회원에 양고기 40% ↓

내일부터 30일까지 행사

롯데마트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 지점에서 양고기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엘포인트 회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대표 상품으로 ‘양 숄더랙’, ‘양 삼겹살’, 이색 양고기 바베큐로 사용되는 ‘양 사태’ 등을 마련했다. 양 숄더랙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 40% 할인된 가격에, 양 삼겹살은 정가 대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양 사태는 기존 가격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각각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양고기 브랜드 ‘동원청정람’ 신규 출시를 기념해,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와 함께 600



롯데마트 브랜드 관계자들이 호주산 양고기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롯데마트

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선보인다. 주요 경품으로는 ‘호주 왕복 항공권’, ‘호주 청정람 숄더랙 선물세트’, ‘이슈 핸드크림’ 등이 있다. 롯데마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양고기를 구매하면, ‘롯데마트GO’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림, 피지컬500에 ‘오! 늘단백’ 지원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오는 19일 강원도 강릉 강문해변 마슬비치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서바이벌 대회 ‘피지컬500’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피지컬500’은 국내 피트니스 브랜드 ‘삼대오백’이 주최하고, ‘세인트존스호텔 강릉’과 국내 밀티터리 컨설팅 업체 ‘티어원브로스’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이다. TV 프로그램 ‘강철부대’ 마스터 교관으로 잘 알려진 최영재 티어원브로스 대표가 설계한 실전형 코스에서 체력과 순발력, 지구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총 우승상금 1000만원에, ‘피지컬 100’ ‘강철부대’ ‘강철부대W’ 출연진이

교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하림은 탁 트인 자연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로서 참가자 전원에게 ‘오! 늘단백’ 단백질 음료 3종과 단백질바 2종을 지원한다. 우유 단백질(동물성), 대두 단백질(식물성), ICBP(분리닭가슴살단백질) 등 3종 복합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설계해 고강도 운동 전후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좋은 제품이다.

먼저 단백질 음료는 하림 ‘오늘단백 라떼’ 3종(돌체라떼, 카라멜라떼, 초코라떼)이다. 단백질 음료 특유의 텁텁함과 비릿한 맛을 개선한 부드럽고 달콤한 라떼 맛을 저장·저지방으로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아울렛, 400개 브랜드 ‘블랙 슈퍼 쇼’

18~20일 3일간 봄시즌 초대형 행사

롯데아울렛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 지점에서 봄 시즌 초대형 할인 행사 ‘블랙 슈퍼 쇼’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블랙 슈퍼쇼는 전 상품군에 걸쳐 대규모 할인과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총 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지포어, 마이클코어스, 뉴발란스 등 브랜드는 기존 아울렛 상시 할인가에 최대 30%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아울렛은 먼저, 브랜드 인기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초특가 기획전’을 마련했다. 나이키, 비아커, 토리버치 등 브랜드의 의류, 가방, 유모차 등 상품을 선보이며, 대표 상품으로는 나이키 ‘V2 K런’,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에그의 ‘Z 삼패인 패더지이오’ 등이 있다.

체험형 콘텐츠 함께 운영한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전 점포에서는 토, 일 이틀 동안 구매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퀵 드로잉 캐리커처’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신라면세점 ‘신라로 오라잇’ 행사

신라면세점이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달 16일부터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신라로 오라잇’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라로 오라잇은 ‘신라에서 쇼핑하라’는 의미를 담아 신라면세점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내국인 대상 행사다.

▲모여라잇 ▲즐거라잇 ▲떠나라잇 총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전 카테고리 상품을 최대 85% 할인가에 공한다. /안재선 기자

브릿지바이오, ‘BBT-877’ 임상 난항… “연구개발 지속”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글로벌 2상서 유효성 입증 못 해
추가 적응증 검토… 전략 재수립
BBT-301 등 후속 파이프라인 마련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 임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후속 파이프라인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BBT-877’ 글로벌 임상 2상 탑라인 데이터를 공개하며 일차 평가변수인 24주 차 강제 폐활량(FVC) 변화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한국, 미국, 호주, 폴란드, 이스라엘 등 5개 국에서 총 129명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29명 중 116명에서 BBT-877의 유효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24주 차의 강제 폐활량 변화가 약물군(57명)과 위약군(59명) 모두에서 관찰됐으나, 두 군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이사가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현장에서 기업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BBT-877은 특발성 폐섬유증 영역의 미충족 의료 수요로 인해 부작용이 낮으면서도 폐활량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신규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

BBT-877은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 이전되기도 했다. 이후 개발 단계에서 잠재적 독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기술 반환됐고,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아 임상 2상을 진행하게 됐다.

향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번 결과를 포함한 개별 환자들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전략을 재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BBT-877의 오토택신 저해제로서의 기전에 대한 부작용 프로파일은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적응증을 검토하고 있다.

BBT-877은 다양한 섬유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오토택신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오토택신은 인지질의 일종인 리소포스파티딜콜린(LPC)을 생리활성을 가지는 리소포스파티드산(LPA)으로 변환시키는데, LPA는 섬유화, 염증, 암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를 비롯한 섬유증 환자에게 향상된 치료 효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BBT-301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군 중 하나로 경구제로 개발된다.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 제출 전 사전미팅을 거쳐 추가 독성 시험 및 임상 1상이 면제됨에 따라 회

사는 글로벌 BBT-301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BBT-207’을 자체 개발해 임상 1/2상에 진입해 있다. BBT-207의 임상 1a상 용량 상승시험에서 투약용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해 나가며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다. 임상 1a상의 용량상승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의 권장 용량을 선별해 오는 하반기 임상 1b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후속 임상시험계획뿐 아니라 재무 측면에서도 연구개발은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인 JP모건에서 발표도 했고,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과 구체적인 기술이전을 의논했지만 이번 결과로 즉각적인 기술이전은 쉽지 않게 됐다”며 “현재 200억원 수준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아주 충분한 규모는 아니나 BBT-877, BBT-207, BBT-301 등 당면한 과제들은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46cm’ 브랜드 첫 공개

LG생활건강이 체취의 원인을 개선해 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체취관리 전문 브랜드 ‘46cm’를 처음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46cm’ 브랜드 제품은 냄새보다 후각에 더 빨리 도달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체취 방어 효과를 갖춘 향료가 각종 냄새 걱정을 줄여준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에서 샤워 후 24시간 경과 시 겨드랑이 냄새 개선율은 일반 바디워시 대비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은 ‘46cm 체취솔루션 약산성 데오드란트 바디워시’, ‘46cm 나이아신아마이드 톨온 데오드란트’, ‘46cm 체취솔루션 약산성 데오드란트 바디 미스트’ 등 제품군을 폭넓게 구축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GRS-종근당건강 ‘엔제리너스’ 신메뉴 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엔제리너스가 맛과 건강을 함께 즐기는 ‘헬스엔젤니스’ 소비 시장을 공략하고자 종근당건강과 협업을 통한 신메뉴 라인업을 16일 출시한다.

앞서 엔제리너스는 종근당건강과 신메뉴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근당건강의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에너지샷, ▲락토핏 마시는 유산균, ▲다이어트코치 세 브랜드의 건강소재를 활용한 신 메뉴 5종을 개발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신메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 트렌드를 공략하기 위해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종근당건강과 협업을 통한 시그니처 라인업으로 일상 속 건강과 맛 모두 충족하는 로우스펙 메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동아제약 ‘조르단’ 스텝 시리즈 어린이 칫솔 판매 1위

동아제약은 ‘조르단’ 뉴스텝 어린이 칫솔이 국내 판매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0월~2024년 12월 온·오프라인 판매처의 어린이 칫솔 부문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은 유아의 연령대별 구강 구조와 양치 습관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특히 스텝1, 2, 3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각각 0~2세용, 3~5세용, 6~9세용으로 구분된다.

/이청하 기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美 FDA ‘동물실험 폐지’ 수혜 기대

오가노이드 기반 ‘오디세이’ 구축
첨단 의약품·신소재 정확히 평가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다음달 코스타 상장을 앞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실험 폐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일 단일클론항체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동물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의약품 개발 실험에 활용됐던 동물실험은 인공지능(AI) 기반 계산 모델과 실험실에서 만든 인체 장기 모사체(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테스트를 이용해 개선되거나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 평가솔루션 ‘오디세이(O-DISE)’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디세이는 동물 실험 없이 인체의 특성을 모사하는 기능을 가진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정확히 평가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평가 솔루션을 제공한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해 미세한 인체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어, 기존 시험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던 질병 치료제의 효능과 기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

명이다.

또한 회사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함으로써 중앙 미세환경을 정교하게 구현해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자회사 포도테라퓨틱스를 통해 항암제 감수성평가 솔루션을 사업화했고,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감수성 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회사는 현재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및 식품 기업 등과 총 50여 건 이상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6월 13~14일 개최될 글로벌 오가노이드 콘퍼

런스 ‘ODC’25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정밀 의료와 맞춤형 치료제의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동물실험의 폐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디세이를 기반으로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솔루션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며 “오디세이의 수요가 한층 많아지며 회사의 실적도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수요예측은 이달 16~22일에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청약은 이달 25~28일 진행된다. 5월 초 상장할 예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KGC인삼공, 美 ICSB 학술 세미나… 홍삼 효능·안전성 알려

〈국제천연물과학회〉

혈당 조절, 치매 예방 등 효과 확인

KGC인삼공사가 최근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포드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국립천연물연구원(NCNPR, National Center for Natural Products Research) 주관 국제천연물과학회(ICSB,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of Botanicals)에서 ‘홍삼 효능과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인삼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농무부(USDA),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등 정부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한국의 연구자들이 홍삼의 심혈관 건강, 면역세포 항노화 등 대표적인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결과와 섭취 안전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홍삼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흐름 개선, 피로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건강, 혈당조절 등 7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홍삼이 항바이러스, 항암 및 항암 치료 시 피로도 개선, 혈당 조절,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등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혈관 분야 전문가이자 미국 발리안스 클리니컬 리서치 소속의 아미르 라피(Amir Rafie) 박사의(의사)는 “홍삼 섭취가 혈소판 응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안전하게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홍삼이 미국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임이 확인되었다”고 미국 현지에서



미국 국제천연물과학회 아미르 라피 박사 발표 모습

/KGC인삼공사

진행한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이번 인삼 학술세미나에서 정관장 홍삼 제품 시음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적으로 ~~안사셨다~~
헬로렌탈로 **잘사셨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효성티앤씨, 농촌 초등학교에 환경교육 진행

효성티앤씨는 지난 14일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과 구미 지역 농촌 초등학교 대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15일 구미 고아초등학교 전교생 105명을 대상으로 '리젠 되돌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 효성티앤씨 구미공장 유상훈 상무가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효성그룹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제주 관광페스타 공연

코웨이는 물빛소리 합창단이 장애인 날(4월 20일)을 기념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 개막 공연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중증 시각 장애인으로 구성, 지난 2022년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장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창단했다. /코웨이



BMW코리아 미래재단, '주니어 캠퍼스' 운영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여해 체험형 과학 교육 프로그램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는 11.5톤(t) 트럭을 과학 실험실로 개조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은 물론 공익성 행사에 직접 찾아가 과학 창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BMW코리아 미래재단



우리은행-특허청,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우리은행은 특허청과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특허청이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다. 사진은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은행

강원도경제진흥원장에 서동면 전 삼성 부사장 내정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이달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동면 전 삼성에스원 부사장(62·사진)을 제 12대 원장 임용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자는 삼성미래전략실 상무, 삼성전자 전무, 삼성물산 전무, 삼성에스원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 후보자는 내달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6월 1일 취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삼성전자-UNDP, '제너레이션17' 청년리더 5명 합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실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발굴·지원
갤럭시 기술·네트워킹 등 제공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운영 중인 글로벌 청년리더십 프로그램 '제너레이션17'에 5명의 새로운 청년 리더가 합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 보호, 기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너레이션17은 삼성전자와 UNDP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유엔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 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는 ▲해양·기후 보호 활동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브리지타 구아완 ▲생물학자이자 해양 보호 및 지속 가능성 교육을 전개하는 에듀테크 플랫폼 아카



'제너레이션17' 프로젝트에 새롭게 합류한 5명의 청년 리더.

데미아 델 오세아노의 공동 설립자인 에카도르 출신 호세 프란시스코 오초아 ▲성평등 관점에서 기후 정의를 옹호하는 청년 조직 엠포데라 클리마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라질 출신 레나타 코치 알바렌가 ▲기후 운동가이자 재활용 소재와 전자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 키트 개발 스타트업 이브틱에르고의 설립자인 요르단 출신 라하프 아부 마

이알레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발라의 공동 설립자인 인도 출신 솜야 다브리왈이다. 삼성전자와 UNDP는 이들에게 최신 갤럭시 기술을 비롯해 글로벌 네트워킹,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장 부사장은 "글로벌 골즈 달

LG, 올해 첫 '찾아가는 AI 랩' 수업

경남 진주시 반성중학교 방문
경남·충남·전남 12개교 순차진행

LG가 지난 8일 경남 진주시 반성중학교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인공지능(AI) 랩' 수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AI 랩은 LG의 체험형 AI 교육 기관인 'LG디스커버리랩' 콘텐츠를 전국 중학교로 직접 가져가는 프로그램이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은 지금까지 누적 8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다녀간 대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올해부터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교까지 교육대상을 넓혔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로봇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AI휴먼 테이터지능 등 5가지다.

이번 반성중 수업에서는 디스커버리랩의 5개 AI 교육 프로그램 중

특히 인기가 높은 ▲로봇지능 ▲시각지능 수업을 진행했다.

로봇지능 수업은 로봇이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 자율주행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시각지능 수업은 AI가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인식하는 원리를 배우고 손동작으로 로봇을 조작하는 활동이다.

LG전자, LG CNS, LG AI연구원 등 그룹사 연구진들이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구재 제작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수업 장비를 모듈형으로 만들어 한대의 차량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편의성과 내구성을 개선했다.

LG는 올해 반성중을 시작으로 경남, 충남, 전남 지역의 12개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AI 랩 수업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KCL-수입협회,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시험·인증,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지난 14일 한국수입협회와 기업 지원 및 양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수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시험·인증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1970년 설립된 한국수입협회는 약 8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수입 전문 경제기관으로, 우수원부자재 확보, 해외 거래선 발굴 등을 통해 회원사의 수출입 경쟁력



천영길 KCL 원장(왼쪽)과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L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대상 시험·인증 비용 감면 ▲정부 사업 연계 수출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회원사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영홈쇼핑, 산불피해 성금 2000만원 기탁

임직원 자발적 성금모금도 진행

공영홈쇼핑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금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 및 이재민 긴급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기부금과 별도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모인 성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산불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동국제강그룹,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후원

건축소재로서 '럭스틸' 가치 전달

동국제강그룹이 제품·서비스를 넘어 문화적 가치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내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2025년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후원 및 협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시 주최로 지난 2017년부터 격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진행 예정이다.

프리미엄 건축자재 '럭스틸'(Lux



(왼쪽부터)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토마스 헤더워 제 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

teeel)를 생산하는 동국제강그룹은 '건축' 관련 행사인 만큼 단순 금전 후원보다 '사람을 위한 건축'이란 주제에 맞춰 건축 소재로서 럭스틸의 가치를 전담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활용을 제안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

◆KBS △보도시사본부 보도국[편집] 뉴스제작3부장 이승철

부음

▲김현식씨 별세, 김은식(프로축구 수

원 삼성 인재육성팀 프로)씨 형님상 = 14일, 경기도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 205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31-329-5900. ▲이연래씨 별세, 이용필(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씨 부친상 = 14일, 오산한국병원 귀빈실, 발인 16일 오후 1시, 010-8074-7531.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 지우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02.332.4902



2025
JIWO
Production
Presents

꽃가루 알레르기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길가에 개나리꽃이 허드러지게 피어나고 아파트 단지 화단의 철쭉이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리는 완연한 봄이 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을 그렇게 기다렸건만,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꽃물과 재채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봄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10여 년의 일본 생활을 겪으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후천적으로 발병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일본 환경성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일본 국민의 42.5%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봄에 TV 광고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

르기 관련 의약품 광고라 참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남의 일일 뿐이었다. 지인 중 한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몸속에 꽃가루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것이 있다고 했다. 평생 그 양동이에 봄마다 꽃가루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양동이에 쌓인 꽃가루가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동이 크기가 작은 사람은 일찍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양동이 크기가 큰 사람은 평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의 양동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하다. 과학적으로는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지만 매우 알기 쉬운 설명이었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봄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은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번식을 위해 대량의 꽃가루를 방출하는 삼나무 때문이다. 비교적 습기에 강해 건축용 자재와 가구, 육조 재료로 사용되는 삼나무는 원산지인 일본이다. 수백 년 전부터 일본에서 자란 삼나무가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일본 정부는 황폐해진 산림에 삼나무를 빠르게 심었다. 전쟁 후 나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나무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부터 일본은 지진과 습기에 강한 삼나무를 이용해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빠른 도시 재건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런데 1970년대 수입 목재 가격이 하락했고, 아파트와 맨션 등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재배한 삼나무 수요가 대폭 줄어 들었다. 이렇게 필요한 목재보다 많은 삼나무가 일본 국토에 늘어나게 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같이 일본 국민의 40% 이상을 괴롭히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바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높은 키로 자라버린 나무를 모두 베어 버릴 수도, 도시의 아스팔트와 시멘트도 전부 걷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모순인 것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시기에 알레르기 약부터 안경과 마스크 등 꽃가루 대책 상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꽃가루가 널리 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보험사기’와 설계사의 신뢰



김 지 수 첩
금융부

‘보험 설계사’란 보험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험 설계사들이 단순히 고객을 돕는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일반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9개 보험사에서 12명, 15개 GA에서 23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의 행동은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전문가가 오히려 고객을 속이고 범죄에 가담하는 판을 짜 놓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2022년에는 1763명이, 2023년에는 1958명, 2024년에는 2160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이전처럼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다만 모든 법과 규제에는 허점이 있듯이

전문가인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보험사와 GA업계에서는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05개 회사 중 71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다시 채용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사기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일반 고객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설계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보험사기 설계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제재와 개정안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6일 (음 3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상속을 주게 되니 축복이자 복덕이다. 48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60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72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84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다.



37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49년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61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73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85년생 닭띠와 언쟁하지 않도록 하자.



38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생하지 않다. 50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62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74년생 결정 장애처럼 유유부단하여 손해. 86년생 후회해도 물거품이니 잊고 털어내야 한다.



39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51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를. 63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 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가. 75년생 꿈 같은 아내가 여우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87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이다.



40년생 목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52년생 장사에서 상술도 능력이다. 64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일찍 나서라. 76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이다. 88년생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괴상한 며느리만 있다.



41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53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65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77년생 음주운전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된다. 89년생 사람 치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42년생 말의 흉수 시절 조심은 하자. 54년생 결혼이 필수 시대였으나. 66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78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90년생 늦지 않았으니 노력해서 재물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43년생 요구가 많은 배우자로 골치가 아플 것. 55년생 동료가 이기적이나 하나 영업력은 우수. 67년생 말은 일을 매듭짓는다. 79년생 물 흐르듯 인간 세상의 원칙은 있는 법. 91년생 상대에게 위협을 받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빈축을 산다.



44년생 젊어서부터 미모가 있으나 인덕이 박하다. 56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68년생 서두르는 결혼이 이혼을 부른다. 80년생 피를 부리다가 발등 찍는 격이 된다. 92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도록.



45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이득과 연관된다. 57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69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인하지 말자. 81년생 삶의 기회는 늘 찾아오기 마련. 93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러들 피곤을 가져온다.



46년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니 사장님 얘기로 썬지 마라. 58년생 빛과 그림자는 있게 마련. 70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일이 해결. 82년생 성급함을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도록. 94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47년생 진리는 자연에서 찾아보도록. 59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71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83년생 구습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 95년생 주식시장에서 예측의 기법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김상회의四季

월광사의 청년밥상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서는 청년 밥상 이름으로 부담 없는 한 끼 밥을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매일 제공했었는데 요즘은 사정상 1주일에 1~2회만 하고 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밥값은 2000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사실상 무료다. 무료로 제공하면 식사를 하는 분들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은 금액으로 표시했다. 그 정도 액수를 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밥값을 직접 받지 않고 한쪽에 놓여있는 기부금 통에 넣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 넓게 보면 식량 사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다. 그런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분들이 조금씩 기부를 하면 사회 전체로 온기가 퍼질 것이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뜻 지폐 몇 장을 기부금 통에 넣는 분들도 있다. 청년 밥상을 필자 혼자 힘으로만 운영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월광사 신도회장님과 신도분들의 힘이 크다. 그분들은 쌀을 지원해주고 좋은 식재료도 가져온다.

사실 청년 밥상을 유지하는 데는 필자의 사재가 많이 들어간다. 후원만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청년 밥상의 밥값이 저렴하지만 식자재의 품질은 최고품질로 사용한다. 청년 밥상에서 식사한 분들이 음식 맛에 감탄하는 건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국내산이다 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필자의 사재를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대단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어서 청년 밥상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 밥상의 작은 씨앗이 커져서 기부 문화가 피어나기를 하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5

1

4

5

2

5

4

3

5

7

3

9

6

8

1

9

5

1

2

1

5

4

6

2

3

8

9

3

4

2

5

3

2

6

8

1

1

5

3

8

6

1

7

7

4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6

7

1

8

2

8

1

9

1

8

9

1

6

2

8

9

2

1

8

9

9

7

1

6

9

8

1

7

8

1

6

9

2

1

6

8

9

1

2

1

9

2

9

8

1

6

9

1

8

7

1

7

6

2

8

9

9

1

8

1

8

9

7

1

8

6

2

9

8

9

9

6

1

2

7

8

1

8

2

7

8

9

1

1

2

9

6

1

1

8

9

7

8

9

2

대중교통 혁신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1000만건 돌파

서울시, 출시 1년 만의 성과
김포·구리·고양 등 이용범위 확장
신용카드 결제, 후불형 등 불편 해소
5월 성남, 하반기 하남 등서도 사용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충전 1000만 건을 돌파하며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기준 선불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실물 690만 건, 모바일 311만 건 등 총 1001만 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27일 선보인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하나의 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적용지역 확대…단기권 도입 등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등 수도권 지하철까지 이용범위를 확장했으며,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하고 후불형 카드도 출시하는 등 시범사



업 초기 현금결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후에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단기 이용자를 위해 1·2·3·5·7일권 등 단기권을 도입했고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달 등 주요 문화시설과의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실제 이용자들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1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용후기 이벤트에서도,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과 ‘친환경 실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가 지난 1월 진행한 기후동행카드 생일축하이벤트 선정후기에서 한 사용자는 “평일 출퇴근에, 퇴근 후에는 학원 가는 일상이라 교통비가 부담스러웠는데,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까지 받으니 마음이 편하다”라며 “휴일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하고, 덕분에 여의도공원에서 서울달 풍선도 저렴하게 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할인

서울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으로 이용범위가 지속 확대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5월 3일 성남시 구간 지하철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하남시 및 의정부시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시는 추후 더 많은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할인도 오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 된다.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91호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만 13~18세 청소년들도 청년과 동일하게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30일권(55/58천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할인 연령이 확대된다.

다자녀 부모 및 저소득층 할인 역시 30일권에 한해 적용되며, 2자녀 부모의 경우 5만원대, 3자녀 부모 및 저소득층의 경우 4만원대의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비대면 자격확인 시스템 연계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인 ‘GO SEOUL(고 서울)’을 적용한 신규 디자인의 기후동행카드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광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복지와 환경이라는 두 축을 함께 아우르는 서울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8학년도 수능 모평 9월→8월 앞당긴다

교육부, 통합형 수능 예시문항 공개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 도입

매년 9월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반기 모의평가가 오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8월로 앞당겨진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하반기 모평 성적표가 나온 이후로 순연돼 학생들이 대입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5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변경 정보와 함께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 문항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이 아닌 8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모의평가는 2027년부터 8월 4주~5주 중 시행되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된다.

지금까지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 치러진 뒤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이에 대입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도 공개했다. 이번 문항 개발에는 지난 1월 현장에 안내한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등 2028 수능의 시험 및 접수 체제가 반영됐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한편,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된다. ‘사회탐구 영역’ 및 ‘과학탐구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되며, 각각 25문항 40분 치러진다.

이번 문항 안내 자료집에는 영역별 문제지와 정답표,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가 제공되며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대표문항에는 출제 의도, 교수·학습 주안점 등이 함께 안내된다.

또한 이번 전체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으며 평가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대기업-中企 협력기반 조성 강화

제2차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확정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5년에는 660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 원), 사회경제적 분야 3개 사업(53억 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 원), 노동 분야 4

개 사업(2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 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의대학사 유연화 없어… 수업 참여를”

KAMC “새정부 무관 정부목표 확고”

전국 의대 학장들이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학사 유연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속히 선언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해 달라”며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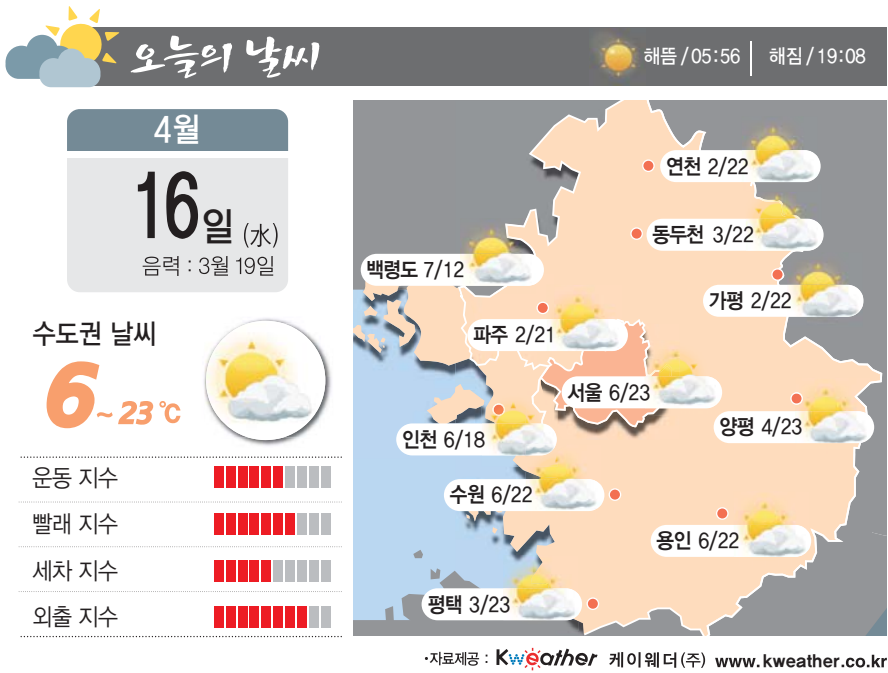
수업 참여를 호소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

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KAMC는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다”라며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우크라이나 “러에 속아…동포들, 참전 말라”
▲“관세 폭탄에 명품도 흔들린다”…LVMH, 1분기 매출 3% ↓
/사진 뉴스시스

▲연준 고위 관리 “상호관세 부과 시 금리인하 불가피”
▲홍콩지 “美, 관세 전쟁 전 中 내민 협상 손 뿌리쳤다”

▲中 “하얼빈 동계표서 미국이 사이버공격”…美 요원 3명 수배
▲美 “관세 후폭풍” 속 연준의장 교체 준비…재무 장관 “후임 물색”



온라인 식품거래액
47조360억원
고객맞춤으로 진화
L1



Life

브릿지바이오
‘BBT-877’
임상 난항
L2



YG의 CAR TALK 카톡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KG모빌리티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 토레스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고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모델이다.

2022년 출시 당시 기아의 대표 중형 SUV 쏘렌토의 판매량을 추격하며 국내 판매량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국내 하이브리드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모빌리티(이하 KGM)의 내수 시장을 이끌 핵심 차량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시승을 위해 만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지만 내적으로는 부드러운 반전 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KGM이 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연비 효율성과 완벽한 주행 밸런스를 확보했다.

시승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KG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을 출발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까지 왕복 6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고속도로와 근교 국도의 와인딩 코스를 주행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첫 인상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해 정통 SUV답게 강인한 느낌을 준다. 후면에는 스포어타이어를 형상화한 육각형의 장식이 더해져 정통 SUV 스타일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반면 길모습과 달리 도로위에서는 하이브리드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KGM은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흡음형 20인치 타이어를 적용해 노면 소음과 진동을 차단했으며, 엔진



KGM모빌리티 토레스 하이브리드 실내.

/KGM

KGM 첫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 흡음형 타이어로 소음·진동 차단 경쟁모델 대비 대용량 배터리 적용 보조금 적용 3100만원대 구입 가능

룸과 엔진커버, 휠하우스 등에 흡차음재를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경쟁 모델 대비 뛰어난 연료 효율성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순수 전기차(BEV)의 중간인 하이브리드차(HEV)로 분류되지만 이날 실제 주행해 보니 전기차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속은 물론 시속 80km 이상 고속 주행에서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내 하이브리드차 중 가장 큰 배터리(1.83kWh)와 모터(130kWh)를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KGM모빌리티는 연비 측정 방식인 cvs75 모드로 도심을 주행하면 94%는 전기 모드로 주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 주행 연비는 공인 복합연비(15.7km/L)를 가볍게 넘어선 20.4km/L를 기록했다. 토요타 SUV 라브4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고객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편의 사양을 대폭 개선

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야간 통합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적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아테나 2.0’을 적용해 각종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내비게이션 맵 클러스터 듀얼맵 확장 기능 추가, 2열 히팅시트 제어 메뉴 추가 등 운전자 편의사양을 업그레이드 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및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을 비롯해 긴급제동 보조(AEB), 안전 하차 경고(SEW) 안전 거리 경고(SDW), 차선 이탈 경고(LDW) 등 최첨단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차선유지보조 기능을 설정한 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차선 흐름에 맞춰 핸들이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하며 매끄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개소세(3.5%)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T5 3140만원, T7 3635만원이다. 경쟁 차량들의 가격이 4000만원 중반대를 형성하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세는 ‘하이브리드’… 국산·수입차 신차 잇따라 출격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라인업 확대
기아, 내년 셀토스 하이브리드 출시
푸조, 전기모터 단독주행 시스템 적용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시장 대응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로 승부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는 물론 스텔란티스 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도 잇따라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실적 판매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4월 고객 인도를 위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3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 적용했다. 여기에 중형 세단인 아반떼로 연식변경을 거치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했다.

기아는 쏘렌토와 카니발 등 현행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고 대기기간만 무려 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내년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며 분위기

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KGM모빌리티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M모빌리티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중국 비야디(BYD)의 기술을 적용했다. 뛰어난 연료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판매 열기를 올해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블랙 에디션을 출시하고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이벤트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최근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했다. 신형 푸조 308은 스텔란티스 그룹의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스 측 설명이다. 푸조는 올 하반기 푸조 308 SUV 등도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한국·북한 U-17 아시안컵 4강행…결승 ‘남북전’ 성사되나 /사진 뉴시스
▲이정후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도 흐뭇…“한국 야구 자랑 될 것”

▲‘발롱도르’ 모드리치, 엄지성 뛰는 스완지 공동 구단주 됐다
▲부상 결장한 손흥민, 선발 멀어진 황희찬…EP L 코리안리거 입지 ‘흔들’

▲바이에른 뮌헨 전설, 김민재 공개 비판…“이해할 수 없는 수비”
▲백승호의 버밍엄, EFL 트로피 우승 실패…2관왕 도전 물거품